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법공양 페이지

“한 생각에 선과 악 바뀔수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마음을 다지는데 좀더 결집없이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데 요점을 두겠습니다. 가끔 보면 몽땅 버리지 않고서도 안간힘을 다해 붙들고 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자기 짝은 자기 뿌리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나무들도 알고 있는데, 사람이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바람이 부나 비가 내리나 눈이 오나 하여간에 어떤 경우든 그 뿌리에서만이 싹을 틔기 때문에 그 나무들은 어떠한 고가

대롭습니다. 부처님이 왜 부처님이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악과 선을 다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악과 선을 갖추어서 그걸 동굴릴 줄 알기 때문에 부처님이시죠. 부처님 상호는 32상에 80종호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라도 어디 하나 모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했듯이 여러분에게만 부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생명이 있는 존재라면 다 불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불(自佛)입니다. 그런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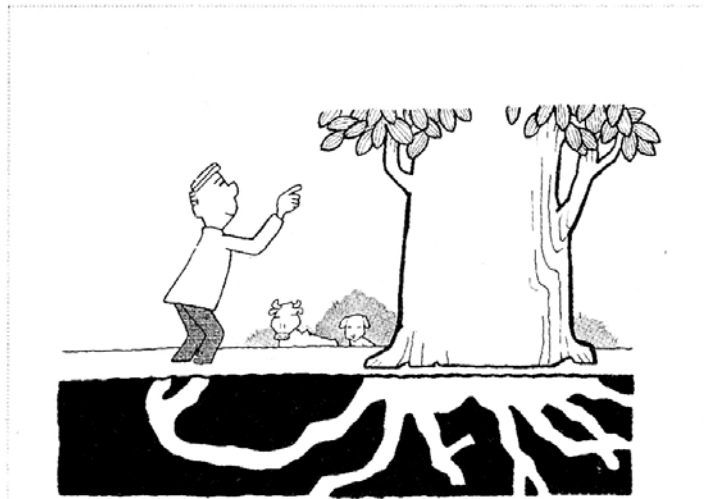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러분한테 허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마음대로 쓰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자기 뿌리를 지기가 못 믿으니까요.

두 가지 경우의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 '소를 한 마리 죽였어도 살생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과 '요만한 벌레 하나를 죽였는데도 살생이 되느냐' 한다면 이 경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를 한 마리 죽였어도 그 마음이 소를 돌로 보지 않고 자기로 봤을 때는 그 영혼이 틀이 아니게 합쳐지고 그 삶은 약으로 된 단 말입니다. 약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밭도 약이요, 반찬도 약이요, 약도 약이요, 전부 약이요, 약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마음공부하는 사람앞에는 꼭 필요해서 죽일 때, 그 소도 건지고 사람도 건지고 양면을 다 건질 수 있는 거죠. 수 만 마리를 죽인다 하더라도 죽인 사이가 없게 되죠. 그대로 여여하게 태어났으니까 말입니다.

어떤 집음이 개라고 합시다. 집에서 개를 기르는데 내 마음과 개의 마음이 같이 하나가 됐다면 개도 없고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개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써 그 영혼의 마음이 하나가 돼버리고 그 물체는 어딘가 모르게 없어져 버립니다. 자기 눈으로 봐야만 없어지는 줄 아시겠습니까? 자기 눈으로 봐야만 태어나는 줄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전력이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전력이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어떠한 짜증이 나고, 부질없는 생각이 날 때도 항상 내가 말하기를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거기다가 놓고 자기는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그 주인으로 인해서 심부름하고 사는 거니까 그대로 거기고 놓고 편안하게 마음먹어라. 심부름 하는 놈이 될 그렇게 주인이 하는 일을 참견을 하고 걱정을 하느냐' 이랬지요. 내 몸이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걱정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믿고 바버리면 믿는다 안 믿는다고도 없죠. 본래 자기 뿌리니까요.

예를 들어서 '아, 내일 비가 오면 안되는데' 해도 그것이 그냥 재작 통신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뿌리하고 나하고는 항상 가설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뿌리와 뿌리거리 통신이 되고, 용신도 주산신도 보살도 부처님도 다 통신이 되니까요. 사람의 마음이 생각을 해서 움직여서는 계용(用)입니다. 우리 마음이 움직여지면 용이고 몸이 움직여지면 보신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행이고요. 즉 말하자면 공양의 행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말입니다. 육체속에서도 생명체들이 많이 있어서 같은 의식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두 습니다. 그걸 같이 하지 않는다면 바로 악과 선이 즉 말하자면 양면이 생겨서 싸우게 되면 몸이 병이 생깁니다. 생명들이 이것은 아군이다, 저것은 적군이다 하고 편을 갈라서 싸움을 하다가 만약에 아군이 이기든 적군이 이기든간에, 어느 쪽이 이기면 그냥 살이 굳어지거든요. 생명이 죽으니까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것은 나쁜 악신이다, 이것은 선신이다.' 이런 것을 따지지 마시고, 악한 것이 나한테 왔다 하는 것도 따지지 마시고 선신 따로 찾고 악신 따로 물리치고 이리저리 마시고 모든 게 한 생각에 악신도 선신이 되고 선신도 악신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세요. 한 생각 차이에 바뀌는 거죠. 선신은 선신대로만 있는 게 아니고 악신도 악신대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감도짓을 하러 들어갔는데, 부잔 줄 알고 들어갔더니 너무 가난해서 가져올 것이 하나도 없더라지 뭐니까. 그래서 가만히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그 집 어머니가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하는 소리가 '내일 너희들 차비도 없으니 어떻게 학교를 다녀야 하느냐. 쌀 한물도 없는데 어떻게 너희들을 옮겨 보내느냐.' 하면서 울더라. 그걸 보고 강도는 오

16면으로 계속

“어떠한 문제가 닥치더라도
‘평화로운게 있고 괴로운게 있는
양면을 둘 아니게 공부하는구나’
하고 맡겨 놓으면 매듭 풀려요”

다쳐도 편안하게 자기 뿌리를 믿고 한마음이 돼서 지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뿌리를 믿지 못해서 편안히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편안하시고 어떤 분은 편안치 못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 나무들이 말합니다. 모진 바람이 불 때 싹이 아무리 방향 뛰어도 소용없는 일 아닙니까. 그 마음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나무들이 바람에 휘날리고 폭풍에 흔들려도 끄떡없이 한마음이 돼서 뿌리를 지키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바로 나무를 지키는 힘입니다. 그 뿌리를 같이 박고 싹을 조금도 흐트러지게 하지 않는 그런 나무들의 이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콧방귀 탁 튀고 그 뿌리에다가 모든 것을 맡기고 사세요. 맡긴다 안 맡긴다 할 것도 없이 이미 그대로 가설이 되었으니 거기서만 통신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란 게 말입니다. 만나면 얘기하고 듣고 보고 하는 것이 그냥 여여하게 말하고 듣고 행하시죠. 누구한테 내가 이렇게 행한다 하고 행하는 건 아니죠. 누구한테 말한다 하고 말하지 않죠. 본다고 하지도 않죠. 듣는다고 하지도 않으면서 듣고 그대로 여여하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렇게 나오는 그 여여함이

문제는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은 때에 따라 화가 나면 욱도 하고 거친 말도 하고 좋을 때는 좋은 말도 나오고 그러죠. 하지만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정상인 것을 그대로 여여한 줄 알라 이겁니다. 만약에 거친 말이 안 나오고 선한 말과 좋은 말만 나온다면 그것은 부처가 아닙니다. 부처라는 것은 평등공법에서 나오는 여러분 마음의 그 범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욱을 한다고 해서 욱이 업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파가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제가 좋은 말을 쓰고 언짢은 말은 쓰지 말라고 한 것은 여러분이 언짢은 말을 할 때는 언짢다는 걸 알고 하시기 때문에 그게 진짜로 언짢아지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겁니다. 가다 또는 이겁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부처님은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라 이렇죠. 그런데 없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하는 뜻은 양면은 다 본래 갖추어진 본연의 자리에 있다는 얘깁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마음 쓰고, 물러서지 않고 밀고 나가는 그 마음이 그냥 공법입니다. 공법의 핵심입니다. 부처님

“알고보면 높고 낮음 없이 서로가 스승” “선악 다 놓으면 미묘한 참마음 생겨요”

법은 우리 생활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하시고 행하시고 보시고 듣고 하는 그것이 부처님 법입니다. 예전에 공부하던 선사들께서는 '법법이 무엇이 있느냐' 하고 물으면 '볼 아래 잣나무만'이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왜 잣나무만 부처였습니까?

어느 것 하나 공안 아닌 게 없고, 법안 아닌 게 없고, 부처님 아닌 게 없고, 생명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우리의 스승이죠. 알고 보면 서로가 서로의 스승이 되는 거죠.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하시는 거 없습니다. 단, 차원의 높고 낮음은 있죠. 여러분이 이 도리를 모르면 차원이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오니까 그건 낮은 중생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모습이나 행이나 말하는

는 것, 만나는 것 등 전부 거기에서 그 빛이 풍기는 겁니다.

수많은 수 많은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수만가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수만가지 말을 했어도 한마디도 말 한 사자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도 여자들 마음 쓰고 살았는데 '마음 쓰신 것 있으면 내놔 보십시오.' 하면 내놓을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미묘한 법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을 아무리 써도 즐지 않고 아무리 보태도 즐지 않고 그냥 쓸 때 되면 불쑥불쑥 다 나오니까 말입니다. 그 열매나 행복할 겁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렇게 소중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마음을, 광대무변한 그 마음을 마음대로 쓰게끔 여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바로 그 불종자에서 바로 환생이 되는 거죠. 언뜻 피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넣어도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꺼내도 꺼내도 즐지 않는 것이 이 마음이다 이 소립니다.

연등부처님이 부처님한테 '너는 이 다 음에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땐 석가모니로 이름하여 태어나거라.' 하고 수기를 주셨는데 이것도 자기 연등부처님이 자기한테 말을 했기 때문에 받은 사이도 없고 준 사이도 없는 격입니다. 수기를 내린 분도 없고 수기를 받은 분도 없다는 얘 기죠. 그것과 같이 여러분도 진짜로 이 생명체가 불쌍한 줄 아신다면 이 도리를 빨리 아셔야 합니다. 길을 지나갈 때 '아, 참 불쌍하다' 하고 생각하는 순간 벌

법은 우리 생활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하시고 행하시고 보시고 듣고 하는 것이 부처님 법입니다. 예전에 공부하던 선사들께서는 '법법이 무엇이 있느냐' 하고 물으면 '볼 아래 잣나무만'이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왜 잣나무만 부처였습니까?

하며 개인 불지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172)

흘러간 노래 대신에 신곡이 듣고 싶거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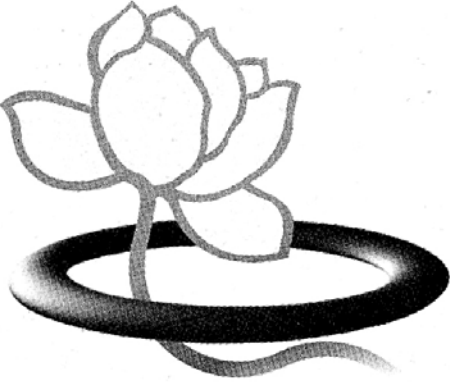
“업이 있다면 그것은 과거에 매여 있는 것도 아니며 미래를 결정짓는 것도 아니다. 확실한 지금의 내 안에 있을 것이다. 지금의 내 안에 과거의 모든 선업, 악업이 잔뜩 실려 있으니 어떻게 해야 자유인이 될 수 있겠는가. 단번에 그 짐들을 다 부러 버리면 자유인이 될 것이다. 지금 크게 한 생각 일으켜 진실로 놓아 버린다면 업의 테이프는 빈 테이프가 될 것이다.”

업을 짊어지고 나와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나오는대로 거기다 되놓고 또 되놓고 하면 앞의 것은 새로 놓는대로 없어진다. 그러므로 업이 붙을 틈이 없게 된다. 육조 혜능선사께서 '먼저 앓을 틈이 없는데 어찌 달고 닭을 게 있는 나'고 하신 것은 물론 되놓으면 공 테이프 본래의 모습일 뿐이라는 이야기이다. 짊어지고 나온 것을 몽땅 맡겨 놓아 그게 없어지면 그 다음엔 채워지고 비워지고, 또 채워지고 비워지면서 채우고 비우고가 없이 본래로 맑을 뿐이다. 이는 더러운 그릇을 수돗물이 쫓아내 주는 데다 갖다 놓았을 때 자연스레 넘치고 또 넘쳐서 더러운은 싹 가시고 맑은 물만 고이는 이치와 같다.”

사람들은 자신을 먼저 되돌아 보라 하기 보다 제게 좋은 일, 즐거운 일만 계속되기를 희망한다. 제 그릇부터 깨끗히 씻지 않고 제게 항상 맑은 물이 담기기를 원한다. 그것이 더러우면 맑은 물을 부어도 더럽다. 그릇부터 닦아내야 한다.

사람들은 내게 내 그릇은 언제나 깨끗하다고 믿는다. 으레 그러려니 믿고 있다. 그래서 조금 언짢은 일이 생기면 금세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운명을 탓한다. 내 그릇은 항상 깨끗한데 수돗물이 더럽다는 것이다.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남이 잘못했고, 내가 원인이 된 게 아니라 환경이 원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틀린 생각이다.

부처님께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라 하신 것은 한마디로 먼저 자신을 보라는 것이다. 나의 생각 오락, 나의 병고 환란, 나의 행복 그것은 다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 것이니 밖을 보지 말고 자신을 보라고 하신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기억의



창고에 그것을 채워채워 쌓여 놓았다가 매 순간마다 다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데 재료로 활용한다. 우리들의 모든 언행은 그런 의식구조에 기초를 두고 있다. 지금 내가 슬픈 것 즐거운 것 좋은 것 좋은 것은 다 오랜 세월을 두고 내가 쌓아 놓았던 재료들의 작용이다. 심지어는 밖에서 일어나 내게 닥아오는 일들, 내가 부딪히는 일들도 모두 나의 그러한 의식작용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업이란 바로 그렇게 내가 과거에 뿌려 놓은 것을 지금 거두고 있는 모습인 것이다.

고로 탓이 있다면 업의 탓이다. 내가 원인을 만들고 내가 결과를 받게 되는 업작용의 탓이라.

누굴 탓하고 무엇을 탓하랴. 나 이외에. 뿌린대로 거두는 업의 작용엔 한치의 예우가 없다. 그러나 내가 뿌리고 내가 거두는 것이니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비유컨대 과거에 뿌려둔 느낌 생각 기억들을 '나'라는 테이프에 녹음을 해두었다고 하자. 지금 스위치를 켜면 흘러간 노래가 나올 것이다. 그게 듣기 싫어 짜증을 부리고 누를 탓하고 했다면 그

다음번에는 흘러간 노래의 편곡이 나올 것이다. 흘러간 노래에다 지금의 사랑, 오욕철정이 가미된 편곡이 나오게 될 것이다. 아예 새 노래를 듣고 싶다면 당연히 새 노래를 녹음해야 한다. 듣기 싫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새 곡을 녹음해 두어야 다음 번에 스위치만 올리면 자동으로 새 노래가 나오게 될 것이다.

내 업의 창고 속에는 온갖 환난과 병고의 씨앗이 들어 있다. 온갖 즐거움과 행복 희망의 씨앗이 들어 있다. 천당과 지옥의 씨앗이 들어있고 평화와 갈등의 씨앗이 들어있다. 부의 씨앗 가난의 씨앗도 들어있다. 그걸 짊어지고 살 것인지 놓고 살 것인지는 지금 한 생각에 달려 있다.

내 마음 속에 용광로를 하나 그려 놓고 닦치는 대로 쏟아 부을 것인가, 내 마음속에 우체통 하나를 그려놓고 닦치는 대로 뒤워보낼 것인가는 지금 한 생각 하기에 달려 있다. 신곡을 듣고 싶거든 새것을 녹음하라.

협찬 : 이정식 · 김현진
이준범 · 이윤경